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2년 7월 6일 (수)

News

은행권,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연장 합의…금리부담도 낮춘다
뉴스1

시중은행들, 이달 중순 판매 종료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판매 기한 연장하기로…기한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하나 일단 연장하는 것에는 합의 도출
각 은행마다 상황에 맞춰 가산금리를 낮출지 금리상승폭을 줄여 보장성을 강화할지 여부 검토 중… 관련 방안은 판매 종료일인 15일 이전에 공개될 예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올해 들어 세 번째
뉴스투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사주 5,000주 장내 매입… 올해 들어 세번째 자사주 매입… 총 11만 8,127주 자사주 보유
사측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금융시장 요동친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목적이라 설명…이번 매입으로 우리금융지주 전체 지분의 0.02% 수준 보유

카카오뱅크 임원, 자사주 1만3285주 매입···"책임경영 차원"
서울파이낸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전략책임자, 자사주 1만주 매입… 유호범 내부감사책임자, 3,285주 자사주 매입
최근 동사 주가가 금리 상승 등 여파로 내리막길 걸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차원으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입했다고 설명

2030 '불안불안' 영끌 매수, 대출 완화에 다시 늘어나나
데일리안

올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거래량 총 7,197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8.7% 기록… 작년까지 2030세대의 패닉바잉 이어졌으나 올 들어 매수세 다소 약해져…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30대 이하 주택 구매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중장년층보다 더 크게 나오는 역전 현상 발생 가능성

음주뺑소니·한방 과잉진료 정조준…車보험 2년 연속 흑자 '청신호'
MTN

오는 28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사고 본인분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시행… 이날부터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적용
각 손보사는 내부 정비 진행 중… 손해율이 현재 수준만 유지되면 2년 연속 자동차보험 흑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다만 휴가철 7~8월이 변수

이복현 유상증자 압박에 고민 커진 보험사들
연합인포맥스

다수 보험사들, 최근 경기 상황에 맞물려 연내 추가 자본확충을 위한 재검토 착수… 시장 상황상 유상증자 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
대다수가 이미 자본성증권 발행 한도를 절반 이상 채운 상태…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고 시그널도 보험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중소형사들에게는 더 큰 부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 시행되지만…실제 상품은 10월 출시
한국경제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도입… 대상 상품은 심의위원회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소수 대표상품 통해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취지…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은 10월 되어야 윤곽드러날 예정

신한·교보·다올·유진證, 반대매매 유예 시행 발표
SBS biz

신한금융투자, 오늘부터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미만 떨어져도 130%이상 지키는 경우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기로 결정
다올, 유진투자증권도 합류… 다만 이번 조건은 모두 신청자에 한해 적용… 다른 증권사들도 조만간 관련 정책 발표할 것으로 보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